

'99 방진회 정기총회 열려

- 우수 방산업체 장관 표창 수여



쟁력 확보로 해외 수출 활성화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여 경쟁력을 제고하자"고 강조했다.

千容宅 국방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의 국군이 있기까지 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자주국방과 군 전력증강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방산업체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주국방의 동반자인 방산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수방산업체로 선정된 한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99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0일 국회회관에서 재적회원 80명중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98년도 사업보고 및 수치결산서 승인의 건,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치예산서(안) 승인의 건,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및 기타사항을 승인하였다.

柳纘佑 방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불확실한 안보상황 아래 우리 방산 현실태를 보면 IMF의 국가적 어려움에 따라 창군 이래 최초로 국방비가 감액 편성되고, 군 소요량의 감소와 방산 시장 개방압력으로 그동안 구축해온 방위산업 기반이 위태로와 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 업계도 심기일전하여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부품국산화를 통한 선진화는 물론 기술개발을 통한 경

국공학, 동명중공업, 코오롱상사에 대한 장관 표창과 함께 '98 방산관련 우수 논문으로 국대원 曹參燮 소령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국대원 金重泰 소령의 「학습효과를 적용한 무기체계 획득」, 국참대 柳中錫 중령의 「한국 방위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등 3편을 선정 시상하였다.



국내 독자개발 기본훈련기(KT-1) 양산 착수

- 기술축적 등으로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 밑거름



한 이후 2호기 제작을 하였고, 선행개발시제 3, 4호기 그리고 실용개발시제 5호기가 성공적으로 제작되어 시험비행을 수행하여 국내 시험비행

국방 부는 초·중등 비행훈련을 위한 기본 훈련기(KT-1)를 국내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기본훈련기(KT-1) 개발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주계약업체인 대우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항공관련 업체의 협력하에 국내최초로 독자설계로 개발,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총 25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다.

기본훈련기(KT-1) 개발은 기술도입생산으로 제작한 F-5 제공호나 F-16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모든 도면 및 기술자료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져 후속 군수지원이 용이할뿐 아니라, 성능개량을 위한 모든 기술적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주요성능은 950마력의 터보프롭(제트엔진으로 프로펠러 가동) 엔진을 장착, 최대 수평 시속 480km/h, 고도 11km로 비행이 가능하며, 체공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영국의 Short Tucano와 스위스의 PC-9 등 외국의 기본훈련기 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91년 탐색개발 시제 1호기가 최초로 비행을

1,500시간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수립하였고, 공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임을 최종 판정받아 현재 양산 승인을 준비중에 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군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탈리아 감함인증국(RAI)의 항공기 인증팀을 초청하여 설계 적합성과 안전성 검토 확인과 인정을 거쳐 항공기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개발기에 대한 국제적인 기술적 신인도를 높여 향후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KT-1 항공기는 금년부터 양산에 착수하여 대망의 2000년부터는 우리가 개발한 항공기가 실전배치되어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게 될 예정이며, KT-1 개발에서 축적된 기술은 향후 차세대 항공기 개발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구 분	제원 및 성능
구조최대속도	320KEAS 이상
최대수평속도	250KEAS 이상
실용상승고도	30,000FT 이상
최대상승률	3,000FPM 이상
이·착륙거리	1,500FT 이하
체공시간	2.5시간 이상

'00~'04 국방중기계획 확정

- 대형 공격헬기, 무인정찰기, KDX-III, 차기전투기, SAM-X 등 착수

국방 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방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지금까지의 국방 중기계획은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측한 가용재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번 '00~'04 국방중기계획은 현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한 가용재원으로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이 뒷받침되는 최초의 계획으로 재정면에서 신뢰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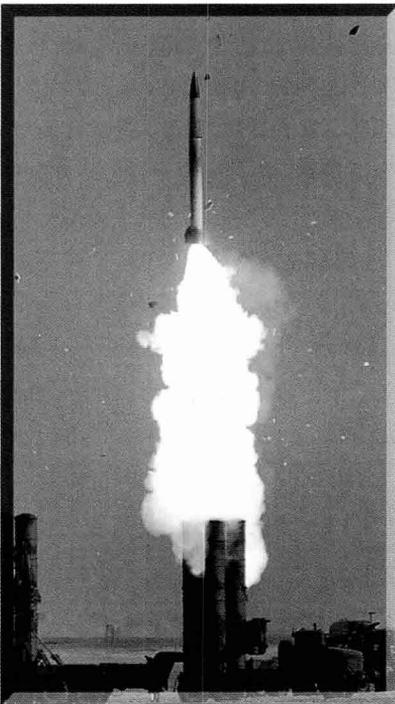
그러나, 자원규모면에서 '99~'02 기간중 국방비 평균증가율이 정부재정 평균증가율 6.1%보다 낮은 4.0%수준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기계획사업의 조정

이 불가피 하였으므로 운영유지 분야는 자원배분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긴축과 절약으로 감내하도록 하였다.

방위력개선 분야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조정 하였으나 투자비 비중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방위력 개선분야는 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조정된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현존전력 극대화 및 미래 핵심 전력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현존전력의 완전성 보장을 위한 기반전력은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대북 전쟁억제와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선별



SAM-X의 후보
기종으로 치열
하게 경쟁중인
러시아의 S-
300(左)와 미
국의 패트리어
트(右)



적으로 착수 및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군사과학기술 분야는 선진국이 통제하는 핵심 기술 분야를 집중개발하여 군사기술적 잠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기 대상기간중 착수되는 주요전력은 대형 공격헬기, 무인정찰기, KDX-Ⅲ, 차기전투기, SAM-X 등이 있으며, 조기경보기 등 첨단 외자장비 등은 국가경제 및 가용재원을 감안해서 한·미 연합 전력을 최대한 활용키로 하고 착수시기를 순연조정 하였다.

운영유지분야는 현존전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전투장비의 정비누적 물량을 해소하고, 장비

유지비를 현실화 하였으며, 국방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PC보급 및 전산망 확보, 사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대군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군사용 사유재산 정리 및 재해·재난 구조장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다.

'00~'04 중기계획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04년말 우리 군의 모습은 방위능력면에서 북한 전지역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보와 장거리 핵심표적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기술집약형 군구조의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명실공히 자주적인 대북 전쟁억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작전 운용 성능 설정기준서 작성

- 한국적 작전 환경 여건에 맞는 ROC 설정

육군 은 그동안 무기체계 획득과정의 출발점이면서도 가장 취약했던 「작전운용 성능(ROC)설정」의 기준서를 연구 작성하여,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실무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부서, 연구기관, 방산업체 등에 배포중에 있다.(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는 작전운용개념상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성능 수준과 요구능력으로 소요제기 단계에서 작성되어 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획득시 근거와 기준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요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군의 ROC 작성실태를 보면 작전운용개념 보다는 성능 위주의 ROC 작성으로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수시수정을 하든가,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종결정 및 업체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되거나 관련업체간의 민원유발요인이 되어 왔다.

예를 든다면, 백두사업과 동부지역 전자전장비사업, 차기 VHF사업 등의 문제발생원인도 따지고 보면 최초 ROC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데 기

인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에서는 '97년말부터 교육사 등 15개 기관의 전문요원이 15개월 동안 연구를 하여 한국적 작전환경 여건에 맞는 ROC 설정 기준서를 작성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모든 무기체계를 47개 무기체계 유형으로 그룹화하여, 그룹별로 ROC에 포함되어야 할 표준항목(필수/선택/공통 적용)을 설정하고, 표준항목 적용도 범위(Bell)를 주고, 오차(±)를 인정하는 등 기존에 비해 융통성 있게 작성토록 하였다.

표준항목별로는 과학기술, 운용개념, 환경요소, 기타 유의사항 등을 고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논리적 절차를 정립하였다. 특히, ROC설정시 고려되어야 할 지리적 요소, 기후/기상요소, 병사들의 신체적 특성치 등을 최신회/체계화 하였다.

앞으로 ROC 설정기준대로 업무가 정착되면, 과거에 ROC기준이 불명확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점이 해소되고, 획득업무가 효율성 있게 추진되는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된다.